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4차원의 영성 제목 : 우리에게 누구의 말이 필요한가 성경: 디모데후서 4장1-5절

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

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

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

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

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(딤후4:1-5)

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.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.

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(마4:4)

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과 혼과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다.

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(히4:12)

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, 묵상하고, 실천하고 반성하고, 연구해야 한다.

1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다.

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

-이는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에서 찾게 됨을

계시하신 것이다.

-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;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게 될 자들을 두고 명한다는 뜻. 아무나 왕노릇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.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며,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뜻.

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

-말씀을 전파하라.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.
-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;내가 그러고 싶든지,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던지 상관없이, 즉 너의 형편이나 시대의 형편을 따지지 말고, 군사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. 너의 판단이나 너의 사정이 중요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라.

(군사적 표현임)

-항상 힘쓰라;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것을 힘쓰라.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.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는 돈이나, 시간이나, 정성이나, 애씀이나, 수고를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.

-범사에 오래 참음으로; 쉽게 포기하지 말고. 상대방이 지칠지언정 내가 지치지 말아라.

-가르침으로;무작정 말하지 말고, 조리있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도록 잘 가르치라.

-경책하며;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며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, 잘못된 행동인지, 잘못된 태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라.

-경계하며;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뜻. 책망할 때 마귀의 생각이 반항하지만, 그를 내어 쫓을 때 복이 된다. 마귀의 생각은 채찍질해야 나간다.

-권하라; 위로하라. 따뜻하고 소망 있는 말로 위로하라.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품어주심을 잊지 말게 하라.

-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얼마든지 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.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고 복을 주시거나, 헌금 했으니

복을 주시거나, 예배에 참석했으니 복을 주시거나 하지 않으신다.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, 정작 복은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.

-복이 없다고 여긴다면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. 정말 복을 받고 싶은가? 그렇다면 정확해야 한다. 실 한 울도 정확하게 바늘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꿰뚫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

-내 귀에 좋은 말은 천마디 만마디가 무슨 소용인가? 내게 복이 되는 말 한마디보다 못하다.

-분명히 경책이나, 경계나, 권면이 무용지물인 사람도 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다.

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(마7:6)

-누가 개와 돼지며, 누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?

-이 판단은 대단히 어려운데, 스스로 판단하는 길 밖에는 없다.

-나는 결코 개나 돼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다. 하나님은 신뢰하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아니된다. 자신은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한다. 그런 자에게 진실한 칭찬은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된다.

-자부심을 갖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지속적으로 그러한지, 환경이 달라져도 그러한지, 부요해져도 그러한지, 가난해져도 그러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. 그럴 수 있는 자만 개나 돼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.

-반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,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지극히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능력이 많은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, 코칭을 잘 받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.

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

-때가 이르리니;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,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.

-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;자기와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며, 그것이 곧 자유로운 영혼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. 사상과 행동의 자유와 자신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시대가 온다. 오늘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. 결과적으로는 악한 생각이나, 악한 태도, 악한 취향까지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.

-물론 그런 형편과 그렇게 된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.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. 나는 이렇기 때문에, 저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태도가 아니다. 스스로가 잘 알지 않는가? 스스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불순종하는 무리들의 숫자를 늘리려 하지 말고 나는 순종하는 자의 무리에 들어야 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.

-귀가 가려워서; 가려운 부분을 긁어달라는 뜻.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, 바로 그곳을 긁어 주어야지, 1cm라도 그 곁을 긁으면 신경질이 난다.

그러나 반대로 나는 볼 수 없고, 등에는 종기가 났는데, 더듬거리면서 나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손을 찾는다고 해 보자. 긁어주는 손이 필요한가, 아니면 종기를 낮게 하는 손이 필요한가?

그럴때는 오히려 환부를 계속 긁어대기 보다는 낮게 해 주는 약이 필요하다.

-사욕을 따를 스승; 자신에게 욕심이 있다면, 나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는 엉뚱해진다. 나는 과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, 욕심 때문에 나의 입맛은 변했으며, 욕심 때문에 나의 행동은 무분별해 질 것이다. 그런 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거나, 헛된 욕심의 무지개를 쫓는 사람이 될 것이다.

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

-허탄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.

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(딤후4:1-5)

-모든 일에 신중하라;항상 이리 저리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면서 세밀하고
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련 학문을 연구하라.

-고난을 받으며;수고와,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말고 잘 이겨내
라.

-전도자의 일을 하며;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주변 사람들
에게 전하라.

-네 직무를 다하라;자신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완수하라.

<찬양예배>

주제: 종말 제목: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예언 말씀:
요한계시록 1장 1-3절

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

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

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(계1:1-3)